

勞 動 經 濟 論 集
 第24卷 (1), 2001.3, pp. 207~230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취업형태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류 기 철*

본 논문에서는 취업형태를 정규직 임금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 및 자영업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포함된 남자근로자들의 전직에 따른 취업형태의 변화를 살펴보고, 또한 경쟁적 위험도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이들의 재취업시의 취업형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퇴직한 일자리에서의 취업형태가 새 일자리에서의 취업형태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직장이동이 반복되는 경우 그 영향력이 점차로 약화되기는 하나 직전 직장 이전에 취업했던 일자리에서의 취업형태도 새 직장에서의 취업형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전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실직한 근로자는 전직 이전의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했던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크게 낮은 반면, 또다시 비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퇴직한 직장에서의 취업형태가 자영직이었던 근로자는 전직 이전의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했던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크게 낮은 반면, 또다시 자영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남자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또는 자영직 일자리가 막다른 일자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정규직 또는 자영직에 취업한 근로자가 전직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정규직과 자영직에의 취업 가능성은 낮아지나 비정규직에의 취업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수급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할수록 노동시장의 비정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주제어: 취업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직, 노동시장 비정규화

투고일: 2001년 1월 5일, 심사일: 1월 15일, 심사완료일: 2월 22일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kcryoo@trut.chungbuk.ac.kr)

I. 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기업들은 그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대량 도산과 실업자의 급격한 증가가 초래되었다. 외환위기 이전 50만 명 수준이던 실업자는 1999년 2월에는 178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외환위기 이전 2%대에 있던 실업률은 8%를 넘어서게 되었다. 정부는 1998년 이후 실업감소와 고용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동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급격하게 증가하던 실업은 1999년 1/4분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 9월 말 현재 실업률이 4%를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¹⁾ 그러나 지난 해 11월 3일의 52개 기업의 퇴출결과와 함께 대규모 구조조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노동시장은 조만간 또다시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어려운 시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노동시장에서는 취업형태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것은 비임금근로자의 증가 및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상승이다.²⁾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정규·비정규근로자에 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에서는 고용계약 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상용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임시직, 그리고 1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하여 비정규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에서는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외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의 기간 동안 45일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한 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파견근로자나 호출근로자 등 통상의 근로형태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생겨나고 있는바 이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

1) 1997년 이후 최근까지의 월별 실업률은 <부표 1>을 참조.

2) 취업형태의 변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술.

이 보통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경험하는 디딤돌(*stepping stone*)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 비정규직 일자리가 학력, 기술, 연령 등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주변부 근로자들이 정규직에의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택하게 되는 막다른(*dead-end*) 일자리인가에 관한 논쟁이 있다. 미국의 자료를 분석한 Auer and Cazes(2000)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미취업 또는 실업상태의 근로자가 정규직 일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갖게 되는 일자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olivka(1996)도 미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반드시 저숙련·저기술 근로자는 아니며 시간제 근로자 중 상당한 비율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일자리가 반드시 나쁜 일자리(*bad jobs*)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1980년대 중반의 캐나다의 비자발적 실직자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McCall(1997) 또한 전일제(*full-time*)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시간제(*part-time*)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일제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취업형태의 변화 추이를 개관한 후 한국노동연구원의 제2차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직을 경험한 근로자들의 재취업에 따른 취업형태의 변화를 살펴보고 위험도 모형(*hazard model*)을 이용하여 이들의 재취업시의 취업형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취업형태를 정규직 임금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 및 자영업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근로자가 직장이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과거 취업했던 일자리의 유형이 새로이 취업하는 일자리의 유형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취업형태,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과 자영업 취업형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취업형태의 변화 추이와 비상용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1997년 이후 최근까지의 한국의 고용상태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먼저 취업자수를 보면 경제위기 직전인 1997년 3/4분기 현재 2,140만 2,000명이었으나 1999년 1/4분기에 1,910만 5,000명까지 감소하였다가 그 후 회복세를 나타내어 2000년 3/4분기에는 2,139만 5,000명으로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해서 보면 이들 두 유형의 취업자 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임금근로자는 상기 3년의 기간 동안 1,327만 7,000명으로부터 1,317만 7,000명으로 10만 명이 감소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812만 5,000명으로부터 821만

<표 1> 최근의 취업형태의 변화추이

(단위: 천명, %)

| | 분기 | 취업자 (A=B+C) | 비임금 근로자 (B) | 임금근로자 (C=E+F) | 피용자 비율 (D=C/A x 100) | 상용직 (E) | 임시일용직 (F) | 임시 일용직 비율 (G=F/D x 100) |
|------|----|----------------|-------------------|------------------|-------------------------------|------------|--------------|-------------------------------------|
| 1997 | 1 | 20,510 | 7,475 | 13,035 | 63.6 | 7,321 | 5,713 | 43.8 |
| | 2 | 21,382 | 8,062 | 13,319 | 62.3 | 7,282 | 6,038 | 45.3 |
| | 3 | 21,402 | 8,125 | 13,277 | 62.0 | 7,061 | 6,216 | 46.8 |
| | 4 | 21,132 | 7,859 | 13,273 | 62.8 | 6,942 | 6,331 | 47.7 |
| 1998 | 1 | 19,762 | 7,442 | 12,319 | 62.3 | 6,765 | 5,555 | 45.1 |
| | 2 | 20,244 | 8,024 | 12,220 | 60.4 | 6,526 | 5,694 | 46.6 |
| | 3 | 20,049 | 7,998 | 12,051 | 60.1 | 6,329 | 5,721 | 47.5 |
| | 4 | 19,924 | 7,752 | 12,172 | 61.1 | 6,207 | 5,966 | 49.0 |
| 1999 | 1 | 19,105 | 7,248 | 11,857 | 62.1 | 6,030 | 5,827 | 49.1 |
| | 2 | 20,362 | 7,862 | 12,500 | 61.4 | 5,989 | 6,511 | 52.1 |
| | 3 | 20,695 | 7,994 | 12,701 | 61.4 | 6,044 | 6,657 | 52.4 |
| | 4 | 20,962 | 7,930 | 13,031 | 62.2 | 6,138 | 6,893 | 52.9 |
| 2000 | 1 | 20,313 | 7,442 | 12,871 | 63.4 | 6,124 | 6,747 | 52.4 |
| | 2 | 21,268 | 8,059 | 13,209 | 62.1 | 6,231 | 6,978 | 52.8 |
| | 3 | 21,395 | 8,218 | 13,177 | 61.6 | 6,282 | 6,895 | 52.3 |

자료: 통계청.

8,000명으로 9만 3,000명이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임금근로자의 구성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즉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997년 3/4분기의 706만 1,000명으로부터 628만 2,000명으로 77만 9,000명이 감소한 반면 비상용근로자(임시직+일용직)는 621만 6,000명으로부터 689만 5,000명으로 67만 9,000명이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상용근로자의 비율도 46.8%로부터 52.3%로 크게 상승하였다.³⁾⁴⁾

이러한 비임금근로자와 비상용근로자의 증가는 적지 않은 부분 경제위기 이후 정리해고제의 도입, 근로자파견 허용업종의 확대,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 등이 이루어지면서 상용직에의 취업이 어려워진 다수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으로 비임금근로자와 비상용근로자로 취업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⁵⁾ 그러나 비자발적 비임금근로자와 비상용근로자는 대부분의 경우 고용 안정성이 낮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에 있어서도 정규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2000)의 자료에 의하면 1999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68만 원으로서 정규직의 평균임금인 112만 원의 57%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당 임금에 있어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각각 4,000원과 5,400원으로 조사되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27%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1차 한국노동패널의 자료를 분석한 금재호 외(2000)는 자영업자 중 19.3%가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까지를 포함시켜(단, 이들의 소득을 '0'으로 처리)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월간 평균소득을 비교하는 경우 자영업자는 114.7만 원, 임금근로자는 111.6만 원으로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3) 최경수(1999)는 이러한 근로자의 비정규화 추세가 경제위기 이전인 1995년경부터 시작되었으나 1997년 말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그 속도가 빨라졌다고 주장하였다.

4) 이러한 비상용근로자의 증가는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예컨대, 전체 근로자 중 단기계약직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핀란드의 경우 1985년에 10.5%이던 것이 1998년에는 17.7%로 상승하였으며, 프랑스는 4.7%로부터 13.9%로, 네덜란드는 7.5%로부터 12.7%로 상승하였다. 특히 스페인은 이 비율이 15.6%로부터 32.9%로 상승하여 유럽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조사되었다(Auer and Cazes, 2000).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1982년에 임금근로자의 11.0%를 차지했던 시간제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비율이 1997년에는 18.8%로 상승하는 등 비정규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Houseman and Osawa, 2000).

5) 류재우 외(2000)도 자영업부문이 실업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금재호 외(2000)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한국의 자영업자는 “생산성이 매우 낮아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종사하게 되는 저능력자군과 생산성이 높고 일반적 인적자본을 많이 축적하고 있어 자영업을 통해 고소득을 달성하고자 하는 고능력자군의 둘로 구성된다”고 본다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저능력 자영업 취업근로자의 소득수준은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크게 낮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전반적으로 불리한 경제적 지위를 가지는 비정규직 임금근로 또는 자영업이라는 취업형태가 근로자의 전직 과정에서 얼마나 강하게 유지되는지의 여부 및 취업형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Ⅲ. 전직시 일자리 유형의 변화와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제2차년도 자료이다. 한국노동패널은 전국(단, 제주도는 제외)에서 추출된 총 5,000개의 가구에 속하는 13,000여 명의 15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차년도 자료는 1999년 7~12월 사이에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의 자료 중 직업력 데이터와 개인별 데이터를 결합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직업력 데이터는 패널에 포함된 개인들이 설문조사 시점까지 취업했던, 총 25,000개를 넘는 과거 및 현재의 일자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취업형태(임금근로의 여부)와 고용형태(상용직 또는 정규직의 여부)를 비롯하여 소속 업, 직종, 근로시간, 임금, 취업시기 및 퇴직한 일자리에서의 퇴직시기 등이 그것이다. 특히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용직/임시직/일용직의 여부와 정규직/비정규직의 여부를 별도의 문항으로 따로 질문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정규직/비정규직에 관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하였다.⁶⁾ 이렇게 한 것은 상용직/

6) 김우영(2000)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류하는 데에 이 기준을 사용하였다. 한편 통계청과 마찬가지로 임시직과 일용직을 묶어 비정규직으로 정의하는 경우의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과 응답자들의 직접적인 응답에 기초한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간의 상관계수는 0.8162로 높게 나타났다.

임시직/일용직에 관한 정보가 누락된 일자리가 정규직/비정규직에 관한 정보가 누락된 일자리에 비해 배 가까이 많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누락된 일자리와 명백한 응답착오가 있는 일자리(예를 들어, 퇴직시기가 취업시기보다 오히려 빠른 것으로 보고된 일자리)를 제외하였으며 또한 개별 근로자가 복수의 일자리에서 근무한 기간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겹치는 경우에는 이 중 존속기간이 짧은 일자리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결과 분석에 포함된 근로자의 수와 일자리의 수는 각각 7,283명(남자 3,748명, 여자 3,535명)과 14,882개(남자 8,365개, 여자 6,517개)로 줄었다.⁷⁾

1. 일자리 유형간 전환행렬

본 절에서는 직장이동에 따른 일자리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는 근로자의 전직시 일자리의 유형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남녀별로 정리한 전환행렬(transition matrix)이다. 따라서 현재의 직장을 포함하여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직장을 가진 근로자들만이 본 절의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또한 2회 이상의 직장이동을 경험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든 직장이동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직장이동의 수는 남자가 4,617건, 여자가 2,982건이었다.

먼저, 남자근로자의 직장이동 전후의 일자리 전체에 대해서 유형별 구성을 보면 정규

<표 2> 재취업근로자의 일자리 유형의 변화

(단위: 건, %)

| 퇴직한 일자리의 유형 | | 재취업한 일자리의 유형 | | | |
|-------------|------|--------------|------------|--------------|-----------------------|
| | | 정규직 | 비정규직 | 자영직 | 전 체 |
| 남자 | 정규직 | 2,034 (67.2) | 364 (12.0) | 627 (20.7) | 3,025 (100.0) < 65.5> |
| | 비정규직 | 280 (38.9) | 339 (47.1) | 101 (14.0) | 720 (100.0) < 15.6> |
| | 자영직 | 334 (38.3) | 118 (13.5) | 420 (48.2) | 872 (100.0) < 18.9> |
| | 전 체 | 2,648 (57.4) | 821 (17.8) | 1,148 (24.9) | 4,617 (100.0) <100.0> |
| 여자 | 정규직 | 1,217 (63.9) | 406 (21.3) | 281 (14.8) | 1,904 (100.0) < 63.8> |
| | 비정규직 | 200 (30.8) | 361 (55.5) | 89 (13.7) | 650 (100.0) < 21.8> |
| | 자영직 | 99 (23.1) | 91 (21.3) | 238 (55.6) | 428 (100.0) < 14.4> |
| | 전 체 | 1,516 (50.8) | 858 (28.8) | 608 (20.4) | 2,982 (100.0) <100.0> |

주 : () 안의 숫자는 가로방향 비율을, < > 안의 숫자는 세로방향 비율을 각각 나타냄.

7) 근로자 1인당 일자리 수의 분포에 관해서는 <부표 2>를 참조.

직 일자리의 경우 이동 이전에는 그 비율이 65.5%이었으나 전직 이후의 비율은 57.4%로 낮아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 및 자영직 일자리의 구성비는 각각 15.6%와 18.9%로부터 17.8%와 24.9%로 높아졌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상용직 일자리의 감소 내지는 상대적 비중하락 추세가 한국노동패널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 직장의 유형별로 각 유형의 일자리로 이동하는 비율을 살펴보기로 하자. 정규직 일자리를 퇴직한 후 재취업한 남자근로자의 새 일자리가 정규직일 확률은 67.2%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이 비율은 38.9%에 불과한 반면 또 다시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정규직에의 재취업 가능성은 정규직으로부터 퇴직한 근로자와 비교할 때 4배 가까이, 그리고 자영직으로부터 퇴직한 근로자와 비교할 때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편 자영직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또다시 자영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48.2%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정규직으로부터 퇴직한 근로자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그리고 비정규직으로부터 퇴직한 근로자와 비교할 때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여자근로자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남자근로자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직장이동의 결과 정규직의 구성비는 크게 낮아진 반면 비정규직과 자영직의 구성비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비정규직은 그 비율이 21.8%로부터 28.8%로 남자근로자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져 그간의 노동시장의 비정규화 추세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진전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과 자영직 근로자가 직장이동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각각 30.8%와 23.1%로 남자의 38.9%와 38.3%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여자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남자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규직 이외의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정규직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남자근로자에 비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직장이동을 경험한 근로자 중 기존의 일자리 유형을 유지한 근로자의 비율은 남자가 60.5%(4,617명 중 2,793(=2,034+339+420)명), 여자가 60.4%(2,982명 중 1,816(=1,217+361+238)명)로 나타나, 남녀 모두 직장이동 후에도 기존의 일자리 유형이 유지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새로이 취업하는 일자리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직전 직장 이전에 취업했던 직장의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3>은 설문조사 시점 현재

<표 3> (n-2)번째 일자리의 유형과 n번째 일자리의 유형(n ≥ 3): 남자

(단위: 명, %)

| (n-2)번째 일자리의 유형 | n번째 일자리의 유형 | | | |
|------------------------------|--------------|------------|------------|-----------------------|
| | 정규직 | 비정규직 | 자영직 | 전 체 |
| (n-1)번째 일자리가 정규직인 경우 | | | | |
| 정규직 | 834 (68.8) | 136 (11.2) | 242 (20.0) | 1,212 (100.0) < 77.2> |
| 비정규직 | 85 (54.1) | 43 (27.4) | 29 (18.5) | 157 (100.0) < 10.0> |
| 자영직 | 116 (57.7) | 26 (12.9) | 59 (29.4) | 201 (100.0) < 12.8> |
| 전 체 | 1,035 (65.9) | 205 (13.1) | 330 (21.0) | 1,570 (100.0) <100.0> |
| (n-1)번째 일자리가 비정규직인 경우 | | | | |
| 정규직 | 70 (40.0) | 80 (45.7) | 25 (14.3) | 175 (100.0) < 45.0> |
| 비정규직 | 49 (30.6) | 95 (59.4) | 16 (10.0) | 160 (100.0) < 41.1> |
| 자영직 | 21 (38.9) | 19 (35.2) | 14 (25.9) | 54 (100.0) < 13.9> |
| 전 체 | 140 (36.0) | 194 (49.9) | 55 (14.1) | 389 (100.0) <100.0> |
| (n-1)번째 일자리가 자영직인 경우 | | | | |
| 정규직 | 110 (46.8) | 29 (12.3) | 96 (40.9) | 235 (100.0) < 49.4> |
| 비정규직 | 16 (36.4) | 15 (34.1) | 13 (29.5) | 44 (100.0) < 9.2> |
| 자영직 | 59 (29.9) | 20 (10.2) | 118 (59.9) | 197 (100.0) < 41.4> |
| 전 체 | 185 (38.9) | 64 (13.4) | 227 (47.7) | 476 (100.0) <100.0> |

주 : () 안의 숫자는 가로방향 비율을, < > 안의 숫자는 세로방향 비율을 각각 나타냄.

최소한 3회 이상의 취업경력(단, 설문조사 시점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시 취업중인 일자리를 포함)이 있는 남자근로자 총 2,435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새로이 취업한 일자리(이를 편의상 n번째 직장이라 부르기로 한다. 단, n≥3)의 유형의 분포를 이보다 두 차례 앞서 취업했던 일자리(이를 (n-2)번째 직장이라 부르기로 한다)의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3>의 제일 상단에는 직전 일자리((n-1)번째 일자리)가 정규적이었던 근로자들의 (n-2)번째 직장과 n번째 일자리 간의 전환행렬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n-2)번째의 일자리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서 전체 근로자를 보게 되면(이들은 모두 새 일자리에 취업하기 직전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근무했던 자들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자영직에 취업하는 비율이 각각 65.9%, 13.1%, 21.0%로서 앞의 <표 2>에 제시되었던 정규직 남자근로자의 해당 비율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이들이 두 차례 앞서 취업했던 일자리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보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직전 직장이 정규적이었던 근로자들 중 그 바로 전에 취업했던 일자리(즉, (n-2)번째 일자리)가 정규적이었던 근로자의 경우 n번째 일자리가 정규직인 자의 비율

은 68.8%로 전체 평균인 65.9%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n-2)번째 일자리가 비정규직이었던 근로자와 자영직이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각각 54.1%와 57.7%로서 재취업 이전의 두 개 직장에서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근로자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n-2)번째 일자리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 중 (n-2)번째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n번째 일자리가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27.4%로서 여타의 근로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또한 (n-2)번째 일자리가 자영직인 근로자는 n번째 일자리가 자영직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29.4%)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의 중간 부분은 (n-1)번째 일자리가 비정규직인 남자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들의 (n-2)번째 일자리와 n번째 일자리 간의 전환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도 두 번 연속 비정규직에 근무한 근로자는 그 직후 비정규직에 재취업하는 비율(59.4%)이 (n-2)번째 일자리가 정규직이거나 자영직인 근로자에 비해 크게 높은 반면 (n-2)번째 일자리가 정규직인 근로자와 자영직인 근로자는 각각 정규직(40.0%)과 자영직(25.9%)에 재취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 취업했던 직장 유형이 바로 다음에 취업하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취업하는 직장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n-1)번째 일자리가 자영직인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찾아진다. 즉 <표 3>의 아랫부분을 보면 2회 연속 자영직에 취업한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후 자영직에 취업한 근로자에 비해 향후 자영직에 취업하는 비율(59.9%)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n-2)번째 일자리가 정규직인 근로자는 n번째 일자리가 정규직인 비율(46.8%)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n-2)번째 일자리가 비정규직인 근로자는 n번째 일자리가 비정규직인 비율(34.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는 <표 3>을 이용하여 새로이 취업한 일자리 바로 직전에 취업했던 2개 일자리에서의 취업형태가 비정규직-정규직이었던 근로자와 정규직-비정규직이었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새 일자리에서의 취업형태의 구성비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전자에 속하는 근로자 중 새로운 일자리에서의 취업형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인 자의 비율은 각각 54.1%와 27.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후자에 속하는 근로자 중 상기 비율은 각각 40.0%와 47.5%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기 직전에 취업했던 두 개의 직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각각 한 번씩 경험한 근로자들을 비교하는 경우 직전 직장에서의 취업형태가 새로운 일자리의 취업형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 이전 직장(즉, (n-2)번째 직장)에서의 취업형태가 가지는 영향력에 비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직전의 2개 직장에서 자영직-정규직의 순으로 취업했던 근로자와 정규직-자영직의

순으로 취업했던 근로자의 새 직장에서의 취업형태를 비교하거나 자영직-비정규직의 순으로 취업했던 근로자와 비정규직-자영직의 순으로 취업했던 근로자를 비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찾아질 수 있다.

전직에 따른 취업형태의 변화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직장이 동시 최근 퇴직한 직장의 유형뿐 아니라 그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의 유형 또한 향후 취업하는 일자리의 유형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영향력의 절대적 크기는 오래 전의 직장일수록 작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절에서는 과거 취업했던 일자리의 유형이 근로자가 새로이 취업하는 일자리의 유형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타의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위험도 모형을 추정한다.

2. 일자리 유형의 결정요인

본 절에서는 직장(자영업 포함)으로부터 퇴직한 경력이 있는 남자근로자들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직상태로부터의 탈출, 즉 재취업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의 유형을 앞서와 마찬가지로 정규직 임금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 자영업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유형의 일자리에의 재취업을 독립적인 탈출경로로 상정하는 경쟁적 위험도 모형을 사용한다. 특히 직전 직장의 일자리의 유형 및 직전 직장 퇴직시점에 있어서의 취업형태별 노동시장 경력이 새로이 취업하는 일자리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본 절에서는 근로자의 이전 직장으로부터의 퇴직시점이 1996년 1월 이후인 실직기간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한 것은 한국노동패널의 설문조사가 1998년에 개시되었으므로 분석대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직기간은 월 단위로 측정하였다.⁸⁾ 분석에 포함된 실직건수의 총수는 2,019건이었으며 최장 45개월의 실직기간이 관측되었다.⁹⁾

본 연구에서는 직전 직장의 일자리 유형 등의 요인들이 실직근로자의 실업탈출 위험

8) 이는 예컨대 퇴직 후 재취업시점까지의 기간이 15일에 미달하는 전직 건수의 경우 실업상태를 거침이 없이 전직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직기간을 '0' 개월로 처리하였음을 의미한다.

9) 이들 실직 건수들의 탈출경로별 실직기간별 분포에 관해서는 <부표 3>을 참조.

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서 비례적 위험도(proportional hazard)를 가정하였으며 준모수적 위험도 모형에 해당하는 Cox모형을 사용하였다.

비례적 위험도 모형에서는 x 라는 설명변수를 가지는 관측치의 t 기에 있어서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lambda(t, x, \beta, \lambda_0)$ 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lambda(t, x, \beta, \lambda_0) = \phi(x, \beta)\lambda_0(t) \dots\dots\dots (1)$$

여기서 $\lambda_0(t)$ 는 기간 t 에 있어서의 기본 위험도(baseline hazard)를 나타낸다. 따라서 비례적 위험도 모형에서는 매기에 있어서의 위험도의 변화는 기본 위험도에 의해 결정되며 설명변수는 그 크기와 β 의 값에 따라 단순히 기본 위험도를 증폭(scale up) 또는 축소(scale down)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본 절의 분석에서는 실적상태로부터의 세 가지 탈출경로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한다.¹⁰⁾ 따라서 d_{ik} 를 i 번째 관측치가 k 번째 유형의 탈출경로를 가질 때 1의 값을 갖는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라 한다면 비례적 위험도와 Cox모형을 가정하는 경우의 탈출경로별 우도함수는

$$L(\beta_k) = \sum_{i=1}^n \left\{ d_{ik} \ln \phi(x_i, \beta_k) - \ln \left[\sum_{j=1}^3 \phi(x_i, \beta_k) \right] \right\}, \quad k = 1, 2, 3. \dots\dots\dots (2)$$

으로 표시되며, 이를 이용하여 기본 위험도와 무관하게 β_k 의 값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phi(x_i, \beta) = \exp(x_i' \beta)$ 를 가정하였다.¹¹⁾

위험도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탈출경로별로 정리한 것이 <부표 4>이다. 설명변수 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직전 직장의 일자리 유형과 퇴직 당시의 유형별 직장경력년수이다. 앞 절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볼 때 직전 직장 및 그 이전에 취업했던 직장의 유형은 퇴직근로자의 새 일자리의 유형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절의 분석에서는 직전 직장의 유형의 영향 외에 그 이전에 취업했던 직장의 유형이 새로이 취업하는 일자리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 위하여

10) 이는 특정 유형의 일자리에의 재취업 위험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여타 유형의 일자리에 재취업함으로써 종료된 실적기간은 해당 시점에서 잘려진(censored) 관측치와 동일하게 취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Cox 모형에 관한 간단한 설명은 Kiefer(1988)나 류기철(1999)을 참조.

11) 이 경우 각 설명변수 값의 단위당 변화가 재취업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exp(\beta)$ 로 표시될 수 있다.

퇴직시점에서의 근로자의 총취업경력을 그간 취업했던 직장의 유형을 따져 정규직 경력, 비정규직 경력, 자영직 경력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설명변수로 취급하였다.

설명변수 중 연령과 실업률은 실직기간 동안의 각 시점에서 그 값이 변화할 수 있는 가변설명변수(time-varying covariates)로 취급하였다. 즉 실직기간중에 해가 바뀌는 경우에는 연령변수의 값이 1만큼 증가하도록 하였으며 실업률의 경우에는 <부표 1>에 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분석기간중 그 변동이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실제 실직기간 동안의 매월의 실업률을 사용하여 위험도 모형을 추정하였다.¹²⁾ 혼인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결혼 여부를 사용하였다. 실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결혼하는 경우가 변수의 값이 0으로부터 1로 변하게 되므로 이 변수 또한 가변변수로 취급되는 것이 옳겠으나 여기에서는 이를 가변변수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퇴직 당시의 혼인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¹³⁾

위험도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이 표는 비정규직 일자리로부터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일자리로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이나 자영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크게 낮은 반면,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은 크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자영업으로부터 퇴직한 근로자는 정규직 일자리로부터 퇴직한 근로자와 비교할 때 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또 다시 자영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전 직장을 제외한 이전 직장의 유형의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별도의 설명변수로 포함시킨 일자리 유형별 경력년수의 영향력을 보면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한 경력년수가 많을수록 비정규직 일자리에의 취업 가능성이 다소 낮아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영향력이 찾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퇴직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 직전 직장에서의 취업형태가 새 일자리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그 이전 직장에서의 일자리 유형은 직장이동이 반복될수록 그 영향력이 점차 작아진다는 앞 절에서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남자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거치는 디딤돌로서의 성격

12) 이처럼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설명변수의 변화를 추정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위험도 모형이 가지는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이다.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분석한 류기철 외(1999)는 실업급여와 구직등록 여부를 가변설명변수로 취급하였다.

13) 분석에 포함된 관측치 중 1996년 이후에 결혼한 근로자에 속하는 것의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표 4〉 경쟁적 재취업 위험도 추정결과: 남자

| | 정규직 재취업 | | 비정규직 재취업 | | 자영업 재취업 | |
|--------------------|-----------|-------|-----------|-------|-----------|-------|
| | 계수값 | t-값 | 계수값 | t-값 | 계수값 | t-값 |
| 1. 인구학적 변수 | | | | | | |
| a. 연령 | | | | | | |
| 연령 | 0.1358** | 4.12 | 0.0734** | 2.02 | 0.2961** | 5.53 |
| 연령의 제곱 | -0.0021** | -5.21 | -0.0011** | -2.47 | -0.0037** | -5.88 |
| b. 학력(기준=고졸) | | | | | | |
| 중학교 이하 | -0.1946 | -1.54 | 0.3159** | 2.37 | -0.2572 | -1.56 |
| 전문대 | 0.0076 | 0.06 | -0.1293 | -0.71 | -0.1386 | -0.66 |
| 대학 이상 | -0.0193 | -0.18 | -0.3788** | -2.33 | -0.2344 | -1.49 |
| c. 혼인상태(기준=미혼) | | | | | | |
| 기혼 | 0.2842** | 2.61 | 0.2530 | 1.58 | 0.5181** | 2.74 |
| 2. 직전 직장 관련 변수 | | | | | | |
| d. 일자리 유형(기준=정규직) | | | | | | |
| 비정규직 | -0.7599** | -5.89 | 0.5042** | 4.01 | -0.6351** | -2.89 |
| 자영직 | -0.4938** | -3.58 | -0.0276 | -0.15 | 0.3652** | 2.29 |
| e. 소속 산업(기준=여타 산업) | | | | | | |
| 제조업 | -0.0426 | -0.46 | 0.0196 | 0.14 | -0.3724** | -2.54 |
| 건설업 | -0.2610** | -2.10 | 0.3232** | 2.42 | 0.0101 | 0.06 |
| f. 직종(기준=사무직) | | | | | | |
| 전문직 | 0.2818** | 2.30 | -0.3892* | -1.84 | 0.0014 | 0.01 |
| 기술직 | 0.1491 | 1.45 | -0.0465 | -0.33 | 0.0032 | 0.02 |
| 단순노무직 | 0.1220 | 0.74 | 0.0075 | 0.04 | -0.0132 | -0.05 |
| g. 근속기간 | | | | | | |
| 근속년수 | -0.0137 | -1.21 | -0.0276** | -2.17 | 0.0043 | 0.31 |
| 3. 경력 관련 변수 | | | | | | |
| 정규직 경력 | 0.0036 | 0.33 | -0.0193* | -1.76 | -0.0018 | -0.14 |
| 비정규직 경력 | -0.0156 | -0.79 | 0.0002 | 0.02 | -0.0247 | -0.98 |
| 자영직 경력 | -0.0034 | -0.26 | 0.0087 | 0.59 | -0.0065 | -0.40 |
| 총 직장수 | 0.0426 | 1.24 | 0.0718** | 2.08 | 0.0030 | 0.07 |
| 4. 노동시장 관련 변수 | | | | | | |
| 실업률 | -0.0656** | -3.82 | 0.0468* | 1.74 | -0.0466* | -1.76 |
| -2Log Likelihood | -9,985.38 | | -5,617.99 | | -5,557.81 | |
| 표본규모 | 2019 | | | | | |

주 : ** 는 5%에서, * 는 10%에서 유의함.

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막다른 일자리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연령은 재취업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령별 재취업 가능성은 세 유형 모두 역U자의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직에의 재취업 가능성은 실직근로자의 연령이 약 32세에 이를 때까지 높아지다가 그 이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및 자영업에의 재취업 가능

성은 각각 약 34세와 약 40세에서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¹⁴⁾¹⁵⁾ 이처럼 남자 근로자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그리고 비정규직보다는 자영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특히 정규직의 경우 중도채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학력이 이들 유형의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는 근로자는 고졸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에의 취업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근로자는 고졸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에의 취업 가능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일자리에 저학력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남자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인적자본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지위를 가지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대안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다음으로 직전 직장의 산업이 새로이 취업하는 일자리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제조업으로부터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여타 산업으로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낮으며 건설업으로부터 퇴직한 근로자는 여타 산업 퇴직자에 비해 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비정규직에의 재취업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다수가 임시·일용직 근로자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직전 직장의 직종의 영향을 보면 전문직으로부터 퇴직한 근로자만이 직전 직장에서 일반사무직으로 근무했던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비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 여타의 직종으로부터 퇴직한 근로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4)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에의 재취업에 있어서의 연령과 연령의 제곱의 계수값의 추정치를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표시하면 각각 (0.13583, -0.00213), (0.07340, -0.00108), (0.29609, -0.00370)이다.

15) 이러한 추정 결과는 류기철 외(1999)나 안주엽(2000)과는 다른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약 1년간의 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실직근로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의 재취업을 분석한 류기철 외는 남자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에의 취업 가능성이 약 44세의 연령에서 가장 낮아지는 U자형의 모양을 가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 데이터틀 이용하여 전직 실업자의 1996~98년까지의 자영업과 임금근로에의 재취업을 분석한 안주엽도 남자 실직근로자의 경우 자영업과 임금근로에의 연령별 취업 가능성이 모두 U자형의 모양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안주엽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이들 두 유형의 취업가능성이 근로자의 연령이 약 55~60세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그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직전 직장에서의 근속년수가 긴 근로자일수록 비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반면, 직전 직장을 포함하여 노동시장 진입 후의 총직장수가 많은 근로자(이들은 상대적으로 빈번한 직장이동을 경험한 자들이다)일수록 비정규직에의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에서의 정착성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비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⁶⁾

마지막으로 <표 4>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는 실직기간중의 실업률(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변설명변수이다)의 영향에 관하여 다소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실직기간중 실업률이 높아지면 정규직과 자영업에의 취업 가능성은 낮아지는 반면, 비정규직에의 취업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것이다. 비정규직에의 취업에 대한 양의 영향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이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하는 등 일자리의 비정규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히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 있었던 1998년 중반 이후 정부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대규모로 시행함으로써 비정규직에의 취업기회가 크게 증가한 것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계수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실업률 변동이 유형별 재취업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정규직과 자영업에의 재취업 가능성은 각각 실업률 상승 이전 재취업 가능성의 93.7% 수준과 95.4%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비정규직에의 재취업가능성은 104.8%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결과가 얻어진다.¹⁷⁾

16) 앞의 류기철 외(1999)는 직전 직장에서의 근속년수가 재취업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17) 안주엽(2000)도 위험도 모형의 추정에 실직기간중 지역실업률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안주엽은 이를 가변설명변수로 다루지 않았으며 또한 임금근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지 않고서 분석하였는데, 남자근로자의 경우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 가능성과 자영업에의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실업률의 추정계수를 각각 -0.132와 -0.234로 보고하고 있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이들 재취업 위험도가 각각 87.6%와 79.1%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IV. 요약 및 결어

최근 들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고 또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수급사정이 수요자측에 유리하게 전개된 데에 따른 현상이라 생각된다(최경수, 1999).

본 논문에서는 취업형태를 정규직 임금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 및 자영업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포함된 남자근로자들의 전직에 따른 취업형태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경쟁적 위험도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이들의 재취업시의 취업형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형태의 전환행렬을 분석한 결과 퇴직한 일자리에에서의 취업형태가 새 일자리에에서의 취업형태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이동 이후에도 이전의 취업형태가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직장이동이 반복되는 경우 그 영향력이 점차로 약화되기는 하나 직전 직장 이전에 취업했던 일자리에에서의 취업형태도 새 직장에서의 취업형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위험도 모형의 추정 결과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즉 직전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실직한 근로자는 전직 이전의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했던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크게 낮은 반면, 또다시 비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퇴직한 직장에서의 취업형태가 자영직이었던 근로자는 전직 이전의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했던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크게 낮은 반면, 또다시 자영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유형별 경력년수가 취업형태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남자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또는 자영직 일자리가 막다른 일자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정규직 또는 자영직에 취업한 근로자가 전직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정규직과 자영직에의 취업 가능성은 낮아지나 비정규직에의 취업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수급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할수록 노동시장의 비정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비상용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면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안정성을 높이고 이들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까지 확대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쉽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에게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정규직에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금재호·조준모,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23권 특별호 (2000. 3): 81-108.
- 김우영,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3권 특별호 (2000. 3): 55-80.
- 류기철, 「실업급여수급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양상」, 『경제학연구』 47집 1호 (1999. 3): 71-96.
- 류재술, 「정부의 실업대책과 실직자의 재취업」, 『국제경제연구』 5권 2호 (1999. 8): 105-126.
- 류재우·최호영,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노동경제논집』 23권 1호 (2000. 6): 137-166.

- 안주엽. 「경기변동과 일자리 탐색기간: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선택」. 『노동경제논집』 23권 특별호 (2000. 3): 109-132.
- 최경수. 「경제위기 기간의 고용구조 변화」. 『노동경제논집』 22권 2호 (1999. 12): 35-60.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 비정규직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정책방안 마련」. 미발표 연구보고서, 2000.
- Auer, Peter, and Sandrine Cazes. "Stable or Unstable Jobs: Untangling and Interpreting the Evidence in Industrialized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the Non-Standard Work Arrangements Conference, Augusta, Michigan, August 2000.
- Houseman, Susan, and Machiko Osawa. "The Growth of Non standard Employment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 Comparison of Causes and Consequences." paper presented at the Non-standard Work Arrangements Conference, Augusta, Michigan, August 2000.
- Kiefer, Nicholas M. "Economic Duration Data and Hazard Function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6 (2) (June 1988): 646-679.
- McCall, Brian P. "The Determinants of Full-Time versus Part-Time Reemployment following Job Displace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 (4) (October 1997): 714-734.
- Polivka, Anne E. "Contingent and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Defined." *Monthly Labor Review* 119 (10) (October 1996): 3-9.

〈부표 1〉 월별 실업률: 1996 - 2000

(단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996년 | 2.1 | 2.3 | 2.2 | 2.0 | 1.9 | 1.9 | 1.8 | 1.9 | 1.8 | 1.8 | 2.0 | 2.3 |
| 1997년 | 2.6 | 3.2 | 3.4 | 2.8 | 2.5 | 2.3 | 2.2 | 2.1 | 2.1 | 2.1 | 2.6 | 3.1 |
| 1998년 | 4.5 | 5.9 | 6.4 | 6.6 | 6.8 | 7.0 | 7.6 | 7.3 | 7.2 | 7.1 | 7.2 | 7.9 |
| 1999년 | 8.5 | 8.6 | 8.0 | 7.1 | 6.4 | 6.2 | 6.2 | 5.7 | 4.8 | 4.6 | 4.4 | 4.8 |
| 2000년 | 5.3 | 5.3 | 4.7 | 4.1 | 3.7 | 3.6 | 3.6 | 3.7 | 3.6 | | | |

〈부표 2〉 1인당 일자리수별 근로자 분포

(단위: 개, 명)

| 1인당 일자리수 (A) | 남 자 | | 여 자 | | 전 체 | |
|--------------------|-------------|-----------------|-------------|-----------------|-----------------|-----------------|
| | 근로자수 (B) | 일자리수 (C=AxB) | 근로자수 (D) | 일자리수 (E=AxD) | 근로자수 (F=B+D) | 일자리수 (G=C+E) |
| 1 | 1,566 | 1,566 | 1,831 | 1,831 | 3,397 | 3,397 |
| 2 | 981 | 1,962 | 954 | 1,908 | 1,935 | 3,870 |
| 3 | 565 | 1,695 | 421 | 1,263 | 986 | 2,958 |
| 4 | 323 | 1,292 | 215 | 860 | 538 | 2,152 |
| 5 | 155 | 775 | 64 | 320 | 219 | 1,095 |
| 6 | 84 | 504 | 31 | 186 | 115 | 690 |
| 7 | 43 | 301 | 9 | 63 | 52 | 364 |
| 8 | 21 | 168 | 6 | 48 | 27 | 216 |
| 9 | 3 | 27 | 3 | 27 | 6 | 54 |
| 10 | 5 | 50 | 0 | 0 | 5 | 50 |
| 11 | 0 | 0 | 1 | 11 | 1 | 11 |
| 12 | 1 | 12 | 0 | 0 | 1 | 12 |
| 13 | 1 | 13 | 0 | 0 | 1 | 13 |
| 전 체 | 3,748 | 8,365 | 3,535 | 6,517 | 7,283 | 14,882 |

주 : 설문시점의 일자리 포함.

〈부표 3〉 남자근로자의 실직기간의 탈출유형별 실직기간별 분포

(단위: 개월, 명)

| 실직기간 | 기간시점 당시 실직자수 | 정규직 재취업 | 비정규직 재취업 | 자영업 재취업 | 실직 유지 |
|-------|-----------------|------------|-------------|------------|-------|
| 0 | 2,019 | 113 | 40 | 46 | 33 |
| 1 | 1,787 | 225 | 94 | 116 | 46 |
| 2 | 1,306 | 84 | 41 | 34 | 38 |
| 3 | 1,109 | 49 | 26 | 25 | 32 |
| 4 | 977 | 35 | 22 | 22 | 17 |
| 5 | 881 | 29 | 25 | 13 | 16 |
| 6 | 798 | 19 | 16 | 11 | 15 |
| 7 | 737 | 14 | 12 | 9 | 9 |
| 8 | 693 | 20 | 24 | 8 | 20 |
| 9 | 621 | 18 | 13 | 4 | 13 |
| 10 | 573 | 17 | 9 | 4 | 15 |
| 11 | 528 | 18 | 8 | 4 | 14 |
| 12 | 484 | 10 | 13 | 3 | 11 |
| 13 | 447 | 16 | 13 | 10 | 18 |
| 14 | 390 | 6 | 6 | 5 | 12 |
| 15 | 361 | 5 | 11 | 4 | 7 |
| 16 | 334 | 7 | 7 | 2 | 11 |
| 17 | 307 | 9 | 8 | 5 | 15 |
| 18 | 270 | 7 | 6 | 4 | 13 |
| 19 | 240 | 5 | 0 | 0 | 9 |
| 20 | 226 | 3 | 6 | 0 | 21 |
| 21 | 196 | 3 | 5 | 0 | 15 |
| 22 | 173 | 3 | 4 | 2 | 14 |
| 23 | 150 | 3 | 3 | 2 | 10 |
| 24 | 132 | 1 | 0 | 1 | 9 |
| 25 | 121 | 3 | 3 | 1 | 12 |
| 26 | 102 | 0 | 1 | 0 | 5 |
| 27 | 96 | 0 | 0 | 0 | 6 |
| 28 | 90 | 1 | 3 | 0 | 8 |
| 29 | 78 | 1 | 3 | 1 | 5 |
| 30 이상 | - | 9 | 7 | 0 | 52 |
| 전 체 | - | 733 | 429 | 336 | 521 |

〈부표 4〉 변수값

| 변수명 | 정규직 재취업 | | 비정규직 재취업 | | 자영업 재취업 | | 실직 유지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0. 실직기간(개월) | 4.7 | 6.3 | 6.9 | 7.6 | 4.1 | 5.3 | 13.2 | 11.3 |
| 1. 인구학적 변수 | | | | | | | | |
| a. 연령 (19세, 99년 기준) | 35.1 | 9.2 | 36.9 | 11.3 | 39.5 | 8.9 | 38.7 | 13.8 |
| b. 학력 | | | | | | | | |
| 중학교 이하 | 0.13 | | 0.30 | | 0.18 | | 0.22 | |
| 전문대 | 0.12 | | 0.10 | | 0.09 | | 0.10 | |
| 대학 이상 | 0.23 | | 0.14 | | 0.18 | | 0.25 | |
| c. 혼인상태 기혼(퇴직시점 기준) | 0.66 | | 0.67 | | 0.85 | | 0.60 | |
| 2. 직전 직장 관련변수 | | | | | | | | |
| d. 일자리 유형 | | | | | | | | |
| 비정규직 | 0.13 | | 0.45 | | 0.11 | | 0.37 | |
| 자영업 | 0.11 | | 0.12 | | 0.29 | | 0.16 | |
| e. 소속 산업 | | | | | | | | |
| 제조업 | 0.36 | | 0.25 | | 0.24 | | 0.27 | |
| 건설업 | 0.12 | | 0.31 | | 0.17 | | 0.17 | |
| f. 직종 | | | | | | | | |
| 전문직 | 0.18 | | 0.07 | | 0.17 | | 0.16 | |
| 기술직 | 0.49 | | 0.50 | | 0.42 | | 0.37 | |
| 단순노무직 | 0.07 | | 0.16 | | 0.07 | | 0.17 | |
| g. 근속기간 근속년수 | 3.8 | 5.7 | 3.3 | 5.5 | 5.3 | 6.4 | 5.2 | 8.5 |
| 3. 경력 관련변수 | | | | | | | | |
| 정규직 경력년수 | 6.2 | 7.1 | 4.2 | 6.5 | 6.9 | 7.6 | 6.3 | 9.7 |
| 비정규직 경력년수 | 0.6 | 2.5 | 2.2 | 4.9 | 0.8 | 2.8 | 1.5 | 4.8 |
| 자영업 경력년수 | 1.1 | 3.6 | 1.7 | 4.5 | 2.4 | 5.1 | 2.2 | 5.8 |
| 총 직장수(개) | 2.4 | 1.5 | 2.4 | 1.7 | 2.4 | 1.7 | 2.3 | 1.7 |
| 4. 노동시장관련변수 실업률(%) | 본 문 참 조 | | | | | | | |
| 표본수 | 733 | | 429 | | 336 | | 521 | |

abstract

Persistence of Employment Types

Keecheol Ryoo

This paper uses the Korean Labor Panel data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employment types of male workers following their job changes with the classification of workers into three categories: regular wage workers, non-regular wage workers, and self-employed workers. It also estimates a competing-risks hazard model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types of work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type of employment of a worker at an immediate previous job has a critical importance in determining his employment type at a new job and that the types of employment at jobs other than the immediate previous job also play some role in determining the type of employment at a new job, although their impact declines as the number of intervening jobs increases. A job loser, who worked as a non-regular worker at his immediate previous job, for example, is considerably less likely to find a regular job, but more likely to get reemployed at another non-regular job than one who worked as a regular worker at his immediate previous job. Similarly, a worker who quit self-employment is much less likely to find a regular job but more likely to restart his own business than one who worked as a regular worker at his immediate previous job.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ot easy at all for a worker who worked as either a non-regular worker or self-employed worker to become a regular worker, although it might be premature to assert that non-regular jobs or self-employed jobs are dead-end jobs. Another interesting finding of this analysis is that a high unemployment

rate lowers a probability of reemployment at either regular jobs or self-employed jobs, but raises a non-regular job reemployment probability, which strongly implies that as labor market conditions become adverse to workers the proportion of non-regular employment can rise rapidly.